

「세 가지 질문」 (원작 레오 톨스토이, 글·그림 존 무스 / 달리)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덕에 집안의 물건들을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학창 시절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주간 스케줄을 쓰는 란에 친구, 가족과 찍은 스티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함께 나눴던 이야기, 그때의 기분 등이 쓰여 있었습니다. 다른 페이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나의 다이어리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과 그 순간을 참으로 따뜻하게 기록해두었습니다. 업무 스케줄만 줄줄이 기록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삭막한 다이어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두 개의 다이어리를 비교해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른인 지금 보다도 학창시절의 저는 제게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지, 그 순간 나는 뭘 해야 하는지 더 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세 가지 질문’을 원작으로 한 그림책 「세 가지 질문」 (원작 레오 톨스토이, 글, 그림 존 무스 /달리)에 나오는 어린 소년 니콜라이처럼 말입니다.

주인공 남자아이인 니콜라이는 어떤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고민을 풀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은 항상 니콜라이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 일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너무 궁금해서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그 대답이 영 자신의 마음에 차

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거북이 레오 할아버지에게 물어 보기로 했습니다. 니콜라이는 거북이 레오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러 갔다가 할아버지를 위해 밥을 갈아주고, 거센 폭풍우속에서 다친 판다 모자를 구해준 뒤,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니콜라이의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거북이 레오 할아버지에게 질문하자, 할아버지는 이미 니콜라이는 스스로 그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니콜라이는 할아버지를 본 그 순간 할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할아버지를 위해 밥을 갈아줍니다. 니콜라이는 판다를 본 순간 판다가 이미 가장 중요한 존재였고, 판다를 위해 새끼를 찾아주고 정성껏 치료해줍니다. 니콜라이의 행동에 숨어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단하기도 하고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점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 그 순간에 풍당 빠져있습니다. 어항 속 물고기 밥을 주고 있는 제 딸아이 또한 그 순간은 마치 물고기와 자신만 있는 것 마냥 물고기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어항 속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어본 것도 아닐 텐데, 그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 어른들은 왜 잊고 살았을까요? 우리에게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람냄새로 가득했던 저의 따뜻한 다이어리는 왜 삭막한 스케줄표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그 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간단하고도 심오한 진리를 다시 마음 속에 담고 실천하리라 마음먹는 일이겠지요.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요즘 휴대폰에는 재난 문자가 쏟아집니다. 혹시 확진자 소식에 놀라 내 눈앞에 소중한 사람들의 순간을 놓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두려움에 짓눌려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의 눈빛과 마음을 놓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는 그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책 속 니콜라이가 마음을 다해 거북

이 레오 할아버지와 판다 모자를 도와주고, 따뜻한 마음의 에너지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의 에너지가 내 마음속의 코로나 블루를 녹여 줄 수 있는 작은 난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림책 속 니콜라이정도로 할 자신이 없다면 작은 미소, 예쁜 말 한 마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수줍지만 소박한 시작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